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활용도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온 영화 효과음원들이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 소개에 활용되는 등 쓰임새가 확대된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 이하 진흥원)은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의 활용도 향상 및 사운드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억 원을 들여 전통소리, 자연의 소리 등 총 7개 분야 3만여 건의 영화 효과음원을 구축하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 추진 2년 차를 맞아 그간 구축해온 효과음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는 한국관광공사의 오디오 가이드 '오디(Odi)' 앱에 지역 고유의 소리를 담은 디지털 콘텐츠 협업에 나서게 된다. 오디앱에 그간 구축된 진흥원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을 활용해서 보다 생생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의 고유 특색을 담은 효과음이 국내 유수의 관광지의 홍보에 활용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보다 풍성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간 구축해온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VR·AR·메타버스 등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부재했던 한국의 효과음원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이 구축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콘텐츠는 K-사운드 라이브러리 홈페이지(www.ksoundlibrary.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음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간 구축해온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이 널리

전주시 남노송동 새뜰마을 정주환경 개선 추진

노인 일자리 제공 방역활동 전개·문화공연 '웃어요 전주' 프로그램 운영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전주시 남노송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남노송동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마을 방역 및 일자리 연계사업과 문화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EM(환경지킴이)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EM(천연미생물)을 활용해 악취 발생 문제를 감소시키는 등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남노송동 새뜰마을 근거리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 활

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EM(천연미생물)에 대한 이해 및 활성액 만들기 ▲활용법과 방역 ▲소독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 시켜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연계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재단과 연계해 마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연인 '웃어요 전주'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남노송동 새뜰마을이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 등으로 안정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남노송동 새뜰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

며, 참여한 주민들은 마을 방역과 일자리 연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남노송동 새뜰마을의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정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새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남노송동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돌봄사업 등의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인생 후반기 시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전주시,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 45~64세 시민 대상

전주시에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목공, 비폭력 대화, 낭독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45~64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 수강생 100명을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50+반려의 숲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낭독 ▲비폭력 대화 ▲즐거움 생활기구 만들기(목공)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상반기 진행된 50+어른학교 시즌1 수업 후 결성된 50+커뮤니티들의 역량강화 과정이 진행된다.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섬진강'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 ▲'숲사랑' 커뮤니티 역량강화 교육: 숲체험 보조진행자 양성과정 ▲'그루터기(목공)' 커뮤니티 역량강

화교육 생활기구 만들기 중급과정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kaj75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인문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63-281-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45~64세 시민들이 막연하게 인생 후반기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어른학교 프로그램은 단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공헌활동 등 50+세대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 활동 공유

전주시·무형문화연구원·전북대 LINC+사업단, 시청 1층 책가동도서관서 내달 3일까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기획전-청년큐레이터 꽃심을 틔우다' 개최

전주시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전주시와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는 다음달 3일까지 전주시 시청 1층 책가동도서관에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기획전-청년큐레이터 꽃심을 틔우다'를 개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온 인물과 단체를 국제공모를 통해 찾아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주시와 (사)무형문화연구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다음달 3일까지 전주시청 1층 책가동도서관에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기획전-청년큐레이터 꽃심을 틔우다'를 개최한다.

제3회 수상자인 ▲딜 쿠마르 바라하이(네팔) ▲엘 펠레(이탈리아) ▲쉬린벡 다블라라마마토브(타지키스탄)의 활동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 학생서포터즈 3D모델링지원단과 연계해 3D모델링 기술로 구현된 세계적인 무형유산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과 전북지역 유일한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인가 NGO인 (사)무형문화연구원은 전북대학교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문화기획 실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8주간 실무 중심의 기초 소양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역대 수상자들의 활동을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무형유산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과 학생들이 참여한 전문문화지원 활동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시를 준비했다"며 "지역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8주간 실무 중심의 기초 소양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역대 수상자들의 활동을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무형유산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과 학생들이 참여한 전문문화지원 활동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시를 준비했다"며 "지역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취약계층 50가구 대상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전주시에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노후화된 LPG가스 배관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00만 원을 투입해 LPG를 사용하는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설 개선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LPG 용기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가

스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80가구의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가구는 시설개선비용 25만 원 중 5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가스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

시설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